

북한 제3차 당대표자회 결과 분석과 전망

전 현 준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0-36

북한 제3차 당대표자회 및 2010년 9월 전원회의가 9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최고지도기관 선거 후 종료되었다. 금번 당대표자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세습구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 동안 김정일 후계자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금번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시나리오로 정리되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후계과정과는 달리 빠르게 후계지위를 이양받았다. 그는 군의 대장 칭호 획득(9.27),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 직위 획득(9.28) 등을 통해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굳혔다. 그러나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완전한 후계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만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직의 신설을 통해 김정은의 군내 입지를 강화시킨 것은 '선군정치'하에서 군의 지지 및 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일 위원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장, 당중앙군사위원장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지위 유지는 북한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김정은으로의 안정적인 권력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통적인 노·장·청 엘리트 구조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80대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70대인 강석주 부총리 등, 60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고루 등용되었다. 전체적으로 '김정일 측근들' 거의 전부가 유입

되었다. 후계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매우 보수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은 모든 면에서 큰 변동없이 ‘직할통치’를 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60대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최룡해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등이 당핵심세력으로 부상한 것이 눈에 띈다.

넷째, 친인척 및 빨치산 2세 등이 약진하였다는 점이다. 김경희 당 경공업 부장, 장성택 국방위부위원장, 최룡해(전 인민무력부장 최 현의 차남) 황해북도 당책임비서 등은 대표적인 친인척 및 빨치산 세력들이다. 리영호 총참모장도 빨치산의 후예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친인척 및 빨치산의 후예답게 김정은 후계구축을 위한 전위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대표자회에서는 노동당 규약 개정이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건설’ 삭제, 당원의 의무 및 각급 당조직들의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 수정보충, 당마크 및 당기장 수정, 인민정권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의 영도 강화, 인민군대 당조직들의 역할 제고 등에 대한 보충이 있었는데, 이는 부분적인 ‘당-국가 체제’의 부분적 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사 결과 및 당규약 개정을 토대로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적으로는 선군사상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권력의 절대화 논리인 선군사상은 김정일이 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계구도가 정착되고 대외관계가 개선되는 속도에 맞춰 이는 서서히 퇴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이 지속될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처럼 군총사령관, 공화국원수, 국방위원장, 당총비서 등의 지위를 차례로 이양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김정은의 능력이다. 김 위원장도 당내에서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김정은도 확실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업적을 쌓아야 할 것이다. 물론 철저한 조직관리를 통해 반대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만일 한치의 오차라도 발생한다면 김정은은 ‘낙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김경희, 장성택, 리영호, 최룡해 등 소위 ‘4인방’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선봉장이 될 것이다. 이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위임’하에 김정은을 정치적으로 보좌하면서 후계구도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나 정책을 과감히 척결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리영호의 갑작스런 약진은 그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김정은은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열기위해서,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서의 치적 확보를 위해서 그는 김정일 절대화에 매진하는 한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남한,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당규약 개정과 관련 당의 위상이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인민정권에 대한 당의 영도가 강화되고 인민군에 대한 당통제가 확대될 것이며 당원들에 대한 집중지도도 예상된다. 중앙당 집중지도사업도 있을 수 있다. 군에 대한 당통제가 성공하고 당조직들이 인민들의 지지를 회복한다면 선군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당-국가체제’가 부분적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